

동서, AN 재가동일정 불확실하다!

전력트러블로 촉매 제거에 시간 소요 ... SARS 문제로 가격은 약세

일본 Asahi Kasei의 100% 자회사인 동서석유화학의 AN(Acrylonitrile) 플랜트가 전력트러블로 가동이 중지됐다.

2003년 2월말부터 20만톤 플랜트가 상업운전을 개시했는데 운전 개시 2개월도 채 못돼 가동이 정지된 것이다.

최근 중증급성호흡기장애군 SARS 문제가 확산돼 아시아 수요가 약간 침체됐지만 공급면에서는 동서석유화학 외에 대폭적인 신증설을 단행한 곳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SARS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앞으로 아시아 AN 수급이 한층 타이트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동서의 AN 플랜트 가동중지는 전력 공급문제에 따른 것으로 설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현 단계에서는 가동재개 시점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만톤의 대형 설비이기 때문에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촉매 제거 등 전면적인 크리닝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03년 1/4분기 AN 수급은 세계적으로 여전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 원료인 프로필렌 공급이 부족해 Allocation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가동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는 Sterling 36만톤 플랜트는 아직 재가동하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는 2002년 이후 트러블이 잇따라 6만톤인 독일 Veba가 철수했으며, 이태리 Enichem도 12만톤의 웨라공장을 2002년 6월 이후 가동 정지했고 10만톤인 아세미니공장은 2003년 중반 스크랩할 예정이다.

아시아에서는 2003년 1월 동서석유화학 및 Sterling이 가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수요처에서 한 때 톤당 5%(50달러) 인하된 880달러 오히려 오름이 있었지만 2월 구정 이후에는 900달러대까지 상승했다. 3월에는 연초의 저가 기대에 따라 매수를 주저하던 움직임이 반전해 Spot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나 4월부터는 SARS 문제로 인해 신증설 계획이 잇따르던 ABS용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가격은 보험세인 930달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SARS 영향이 장기화되면 하락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동서석유화학 외에 중국 上海石油化學의 6만톤 신 플랜트가 2003년 중반 가동을 앞두고 있을 뿐 미국을 중심으로 정정보수가 잇따르고 있어 2003년 세계 공급량은 전년대비 2% 증가한 480만톤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 세계수요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SARS 문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3% 증가한 510만톤으로 예상되나, 더 증가하면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경향이 계속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세계 AN 시장은 당분간 3개월 중 2개월 24만톤을 가동중지한 Sterling의 재가동 시점과 SARS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hemical Journal 2003/05/21>